

2023.08.25(금)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8-25 오전 4:23

수정한 날짜: 2023-08-25 오전 11:56

2023.08.25(금) 증권사리포트

현대백화점

Nothing better

[\[출처\] 유진투자증권 이해니 애널리스트](#)

백화점: 7월 전점 매출 +5%, 8월 YTD 매출 하이싱글 신장.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양호할 것

9월부터는 작년 대전점 화재 영업 중단 영향 및 추석 시점 차이로 베이스 낮아짐. 9월말 추석 선물 세트 수요 존재

3분기부터 미드싱글 이상을 시현하는 매출 성장률이 분기당 100억원 늘어난 고정비 커버 가능

면세점: 7월 매출 추세 소폭 하락하며 일평균 매출 40억초반대 기록했으나 수익성 개선 지속

시내 면세점의 단체 관광객 재개 수혜는 빠르면 9월 후반, 다이고 재고 수요는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

공항 면세점은 8월부터 월별 이익 30억 발생 가능한 구조로 3분기 이익 개선에 큰 기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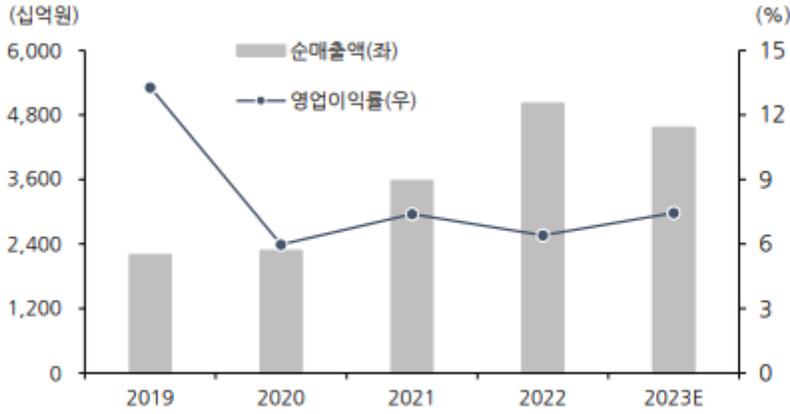
지누스: 연초 대비 아마존의 지누스 재고 절반 가까이 소진됐으므로 하반기 신규 발주 가능성 높아짐

목표주가 82,000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 '매수' 유

12월 결산(십억원)	2021A	2022A	2023E	2024E
매출액	3,572	5,014	4,563	4,849
영업이익	264	321	340	370
세전손익	317	247	328	378
당기순이익	233	186	247	295
EPS(원)	8,092	6,157	8,760	10,761
증감률(%)	169.3	-23.9	42.3	22.8
PER(배)	9.3	9.6	7.5	6.1
ROE(%)	4.4	3.2	4.5	5.4
PBR(배)	0.4	0.3	0.3	0.3
EV/EBITDA(배)	6.2	6.1	5.6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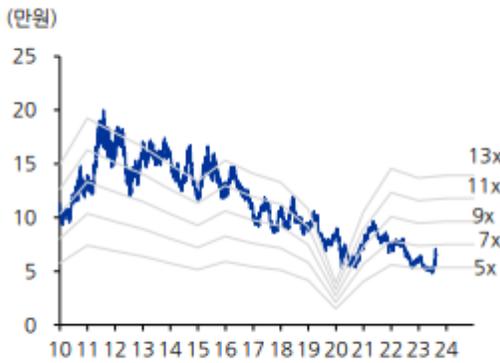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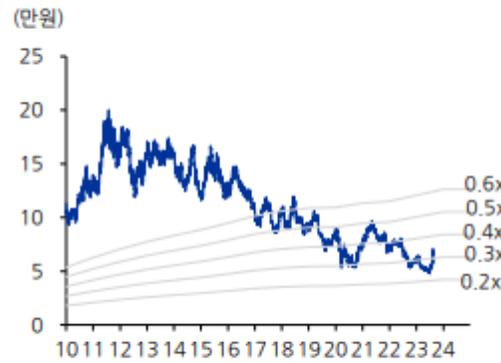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5. PER BAND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6. PBR BAND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원텍

2024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2분기 실적의 2가지 특징

2023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05.0억원, 126.4억원으로 전년대비 54.2%, 225.7% 성장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올리지오, 남미와 중국에서는 레이저 장비인 라비앙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동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의 강점이 발현되고 있다. 둘째, 올리지오의 소모품(Tip)의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Tip의 매출 요인은 올리지오 제품의 인기에 기반한다. 소모품의 이익률이 높으며,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3년 하반기 성장을 기대하는 3가지 요인

첫째, 올해 상반기 고주파 제품인 올리지오를 국내외 433대 판매하였다. 특히, 상반기에 국내 판매되었던 제품의 경우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소모품(Tip) 사용 시기가 도래한다. 둘째, 2022년 10월 올리지오의 미국 FDA 승인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7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The Aesthetic Show(TAS 2023)에 참석하여 올리지오와 피코케어 마제스타 등 다양한 제품을 공개했으며, 7월 29일 미국 LA의 힐튼 에너하임에도 50여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올리지오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하반기 미국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셋째, 2023년 연내 올리지오의 브라질 인허가 취득도 기대된다. 동사는 브라질 내 이미 리비앙 등 레이저 장비 판매를 통해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인허가 이후 조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장이다.

목표주가 15,500원으로 상향

에스테틱 메이저 국가인 미국/중국의 올리지오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동사의 레이저 장비 역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2024년 매출액 1,757억원, 영업이익 705억원으로 전년대비 40.0%, 38.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2024년 EPS 623원에 국내 Peer 기업들의 평균 PER 25.0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15,500원으로 상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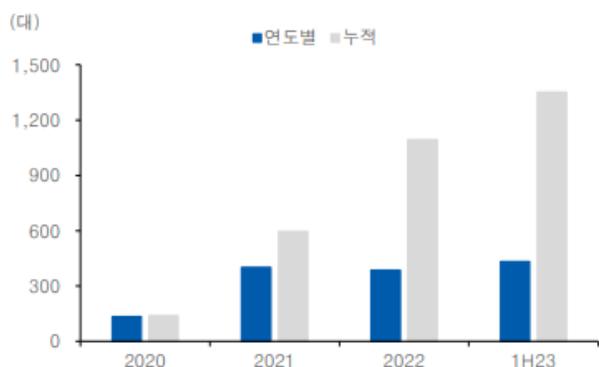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511	815	1,255	1,757
영업이익	104	268	509	705
지배순이익	170	134	390	549
PER	10.5	21.6	29.2	20.7
PBR	7.8	5.1	11.9	7.5
EV/EBITDA	1.0	4.4	20.9	14.7
ROE	181.6	32.3	51.0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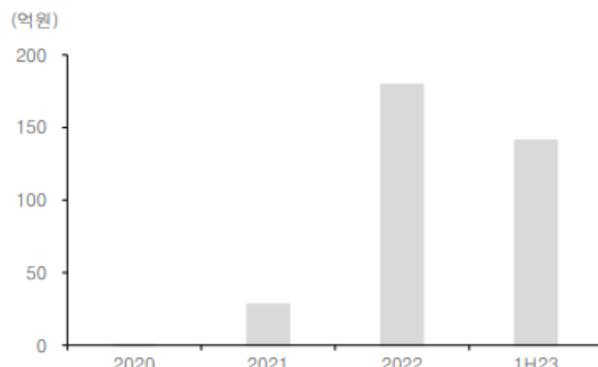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1] 올리지오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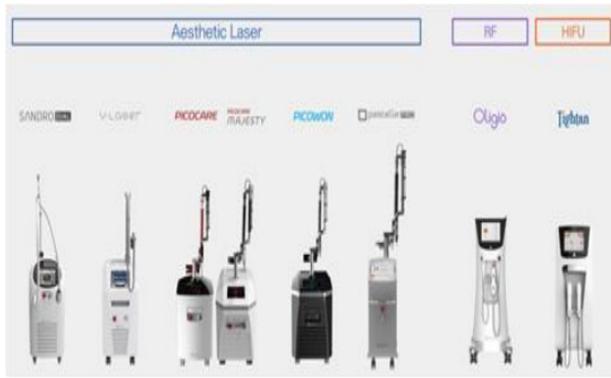
자료: 원맥,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올리지오 Tip(소모품) 매출 추이



자료: 원맥,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자료: 원텍,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포트폴리오 구축 효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코리아에프티
하이브리드에서는 더 고가를 씁니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자동차용 캐니스터와 필터백, 의장부품을 주력 생산

코리아에프티는 자동차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포집하여 엔진으로 환원시키는 부품인 카본캐니스터(매출비중 38%)와 주유구에서 연료탱크까지의 유로관인 필터백(비중 15%), 선쉐이드를 포함한 내장재인 의장부품(비중 39%) 등을 생산한다. 주 고객인 현대차/기아를 포함하여 국내외 완성차(GM/르노/VW, 중국OEM 등)를 고객으로 하고 있다. 국내 본사(매출 비중 46%)와 폴란드(비중 39%)가 주력이고, 중국(6%)/인도(6%)/미국(3%)에도 공장을 운영 중이다.

캐니스터 제품의 고가화와 글로벌 OE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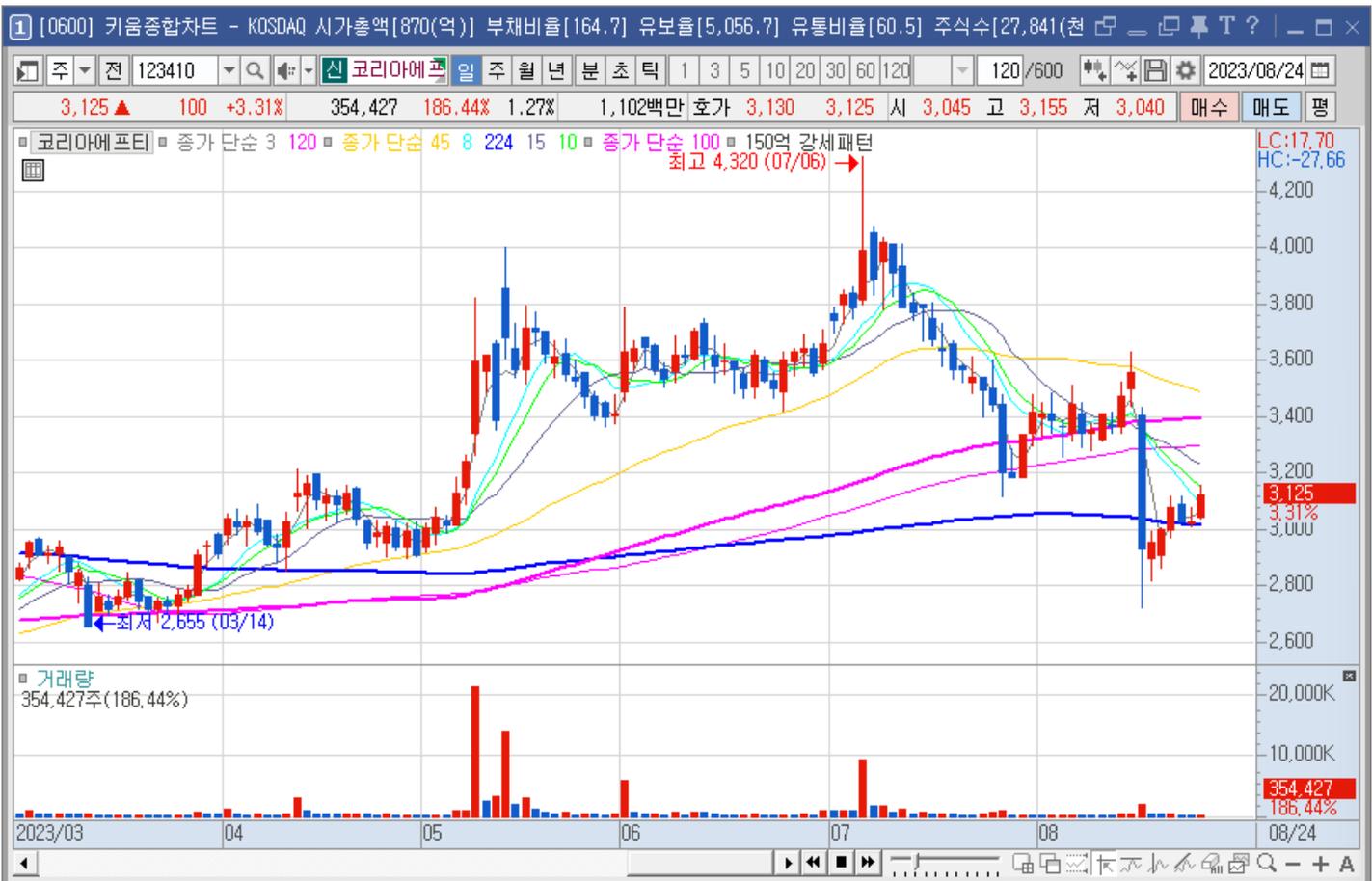
코리아에프티의 실적은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개선 중이다. 전체 영업비용의 6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유가/환율에 연동되는데, 시차를 두고 고객 정산을 받기 때문에 분기 이익에 일시 영향을 주기는 한다(1Q23 +25억원 vs.

2Q23에 반영될 20억원은 하반기 이연). 하지만, 연간 수익성에서는 의미가 적다.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이다. 2022년 매출액이 20% 증가할 때, 인건비(영업비용 중 10.5% 비중)/상각비(4.3%)는 각각 7%/4% 증가에 그쳤다. 결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상각비 비율이 각각 1.3%p/0.7%p 하락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2023년 상반기에도 0.1%p/0.5%p (YoY)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 상승(+1.8%p (YoY))에 기여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매출액 증가 요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캐니스터 부문에서 글로벌 OE로의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이다. 국내 경쟁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사수혜가 있고, 해외에서도 경쟁사의 사업로 글로벌 OE로부터의 수주가 늘고 있다. 글로벌 OE항 납품은 수익성이 높다. 둘째, 환경 규제의 강화로 고성능/고가 캐니스터의 사용이 늘고 있고, 특히 최근 판매가 좋은 하이브리드(HEV)용 캐니스터의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캐니스터내 HEV용 비중 2021년/2022년 14%/16% → 1H23 18%). HEV용 캐니스터는 단가도 50% 높다. 셋째, 고객들의 생산 증가로 순환적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필러넥/의장부품에서도 아이템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P/E 3배 대의 Valuation 기록 중

2023년 매출액/영업이익은 10%/47% 증가한 6,192억원/285억원(영업이익률 4.6%, +1.1%p)으로 예상한다.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의 완화 덕분이다. 현재 주가는 P/E 3배 대, P/B 0.5배 수준의 낮은 Valuation을 보유하고 있어 저평가된 상태이다. 중기로 HEV용 캐니스터의 성장과 글로벌 OE로의 확대가 성장을 이끌 것이다. 다만, 제품군의 50%가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기차로의 전환은 위협이고, Valuation 제약요인이다. e-Fuel(친환경합성연료) 활성화가 이런 위험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이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439	410	466	561	
영업이익	8	6	9	19	
세전이익	7	4	6	11	
순이익	6	4	6	9	
EPS	206	132	200	336	
증감율	43.1	(35.9)	51.5	68.0	
PER	14.3	22.0	16.6	7.1	
PBR	0.7	0.7	0.7	0.5	
EV/EBITDA	5.6	6.6	5.8	3.5	
ROE	4.8	3.0	4.2	6.5	
BPS	4,293	4,388	4,794	5,157	
DPS	60	30	60	80	



토비스

이제는 익숙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개화하는 전장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

최근 현대차, 기아는 '싼타페 풀체인지', '쏘렌토 페이스리프트'를 연달아 출시. 두 차량 모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시킨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2021년식 'K8', 'EV6' 탑재를 시작으로 최근 쏘나타, 스포티지에도 적용되었으며, 주력 SUV 라인으로 확대되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

동사는 지난 6월부터 신규 증설한 서천 공장 전장 디스플레이 라인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쏘렌토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모듈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 향후에도 국내 고객사 향 순차적인 모델 확대가 전망되어 본격적인 사업 개화 기대. 중국 대련 법인 또한 중국 및 글로벌 완성차향 공급이 시작되며 가동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본격적인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개화 기대

비로소 양 축의 성장 동력이 맞물리기 시작

카지노 모니터 사업은 업황 회복, 영업 성과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향 매출성장이 지속되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 인수한 전기차 충전 솔루션기업 글로쿼드텍(지분율 35.98%) 또한 3분기부터 연결 편입 효과로 실적 기여 전망. 지난해 인수한 세일하이텍과의 시너지도 중장기적으로 기대. 양 축의 성장동력이 점차 맞물리며 꾸준한 실적 성장 기대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328.2	459.0	667.0	767.0
증감률	24.6	39.9	45.3	15.0
영업이익	7.0	31.7	51.4	70.0
증감률	흑전	349.6	62.4	36.3
영업이익률	2.1	6.9	7.7	9.1
(지배지분)순이익	-5.0	17.0	38.4	53.7
EPS	-302	1,041	2,363	3,303
증감률	적전	흑전	127.0	39.8
PER	N/A	16.4	7.2	5.2
PBR	0.9	1.4	1.2	1.0
EV/EBITDA	12.8	9.2	6.6	5.1
ROE	-2.7	9.1	18.0	20.8
부채비율	109.9	117.8	117.1	114.1
순차입금	124.9	129.2	123.3	114.6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 1. 이전 쏘렌토 디스플레이 화면



자료:기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2. 최근 출시된 쏘렌토 부분변경 모델 디스플레이 화면



자료:기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3. 다양한 크기와 곡률을 구현한 카지노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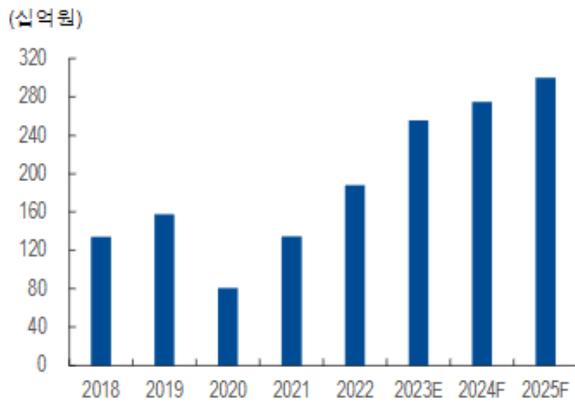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4. 차량 내 다양한 분야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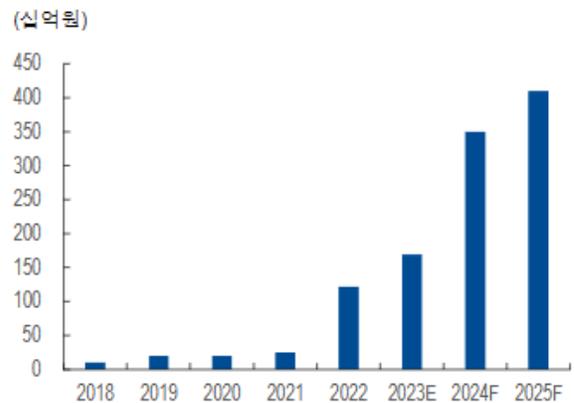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5. 연간 산업용(카지노) 모니터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 6. 연간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풀무원

어느새 미국 매출 4천억원을 눈앞에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2Q23Re: 안정적 포트폴리오 효과. 식품서비스유통과 해외 개선

풀무원의 2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7,554억원(+7% YoY), 영업이익 168억원(+6.8% YoY, OPM 2.2%)을 기록했다. 식품 제조유통의 부진을 해외 실적 개선과 식품서비스유통의 수익성 개선이 방어했다. 1) 식품제조유통(영업이익 137억원)은 B2C는 전년도 기저부담과 원부자재 비용증가로 부진하나 B2B가 신규채널 확보 및 급식 정상화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2) 식품서비스유통(50억원)은 군급식 및 대기업 캡티브 수주와 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3) 해외 (적자 -58억원)는 미국 매출이 881억원(+22% YoY)으로 성장세를 이어갔고 적자폭도 전년비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회원제 채널 납품 중단 이슈가 영향을 미치며 매출이 -34%감소했고 적자폭도 확대됐다. 일본은 두부바가 43% 성장하며 두부/유부 매출 부진을 상쇄했고 정부보조금이 더해져 소폭 흑자 전환했다.

미국 매출 성장세 주목. 소비 트렌드에 딱 맞는 제품과 CAPA 증설까지

풀무원의 해외 실적은 10여년간 적자로 다소 저평가 받아왔지만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며 적자폭을 줄이는 미국 법인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매출은 2015년 972억원에서 2020년 2562억원→23년 4007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법인의 매출 구성은 두부(50%), 아시아인 푸드(40%), 김치/소스 등(10%)이다. 미국내 두부 점유율 1위인 풀무원은 식물성 단백질 선호 트렌드에 따라 두부 매출이 성장 중이며 공장을 증설해 B2C와 B2B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아시아인 푸드 역시 K푸드 열풍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23년 하반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시아인 누들 생산라인을 증설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물류비 절감도 기대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만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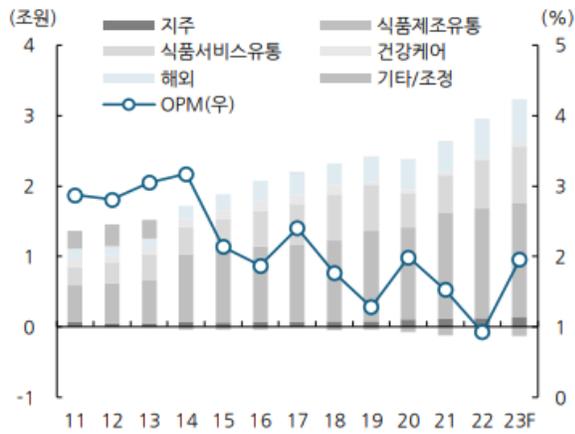
풀무원의 목표주가는 24년 예상 실적에 목표배수 15배를 적용한 후 시점차이를 반영해 20% 할인했다. 해외 적자가 의미 있게 줄어드는 24년에야 동사의 국내 사업부 기업가치도 적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며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311	2,519	2,838	3,103	3,291
영업이익	46	39	26	61	84
영업이익률(%)	2.0	1.5	0.9	2.0	2.6
세전이익	18	14	-18	16	5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	13	-19	19	42
EPS(원)	390	314	-506	529	1,141
증감률(%)	610.9	-19.6	적전	흑전	115.7
ROE(%)	3.8	2.9	-4.2	6.6	21.1
PER(배)	42.4	55.2	-22.1	19.1	8.9
PBR(배)	1.6	1.6	1.1	2.1	1.8
EV/EBITDA(배)	8.1	9.1	8.4	7.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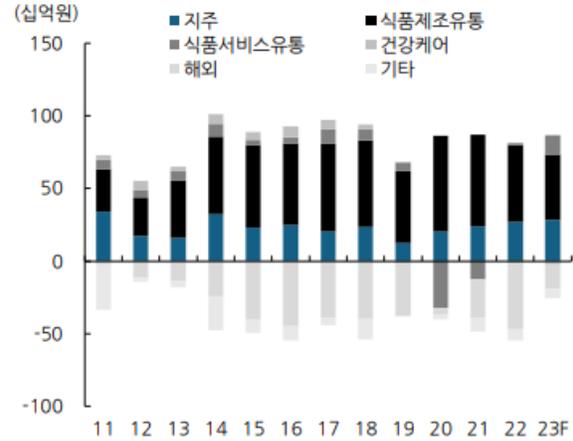
자료: 풀무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풀무원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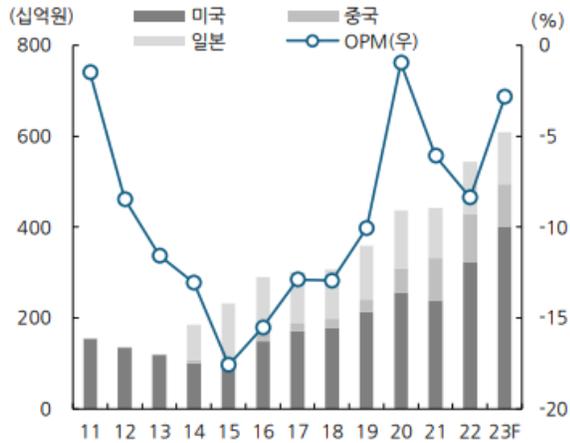
자료: 풀무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풀무원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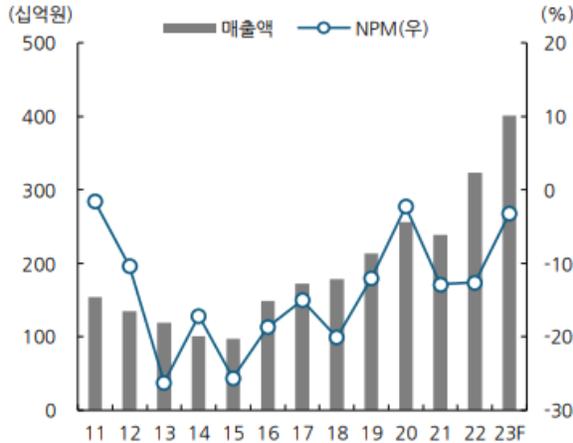
자료: 풀무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풀무원 해외 국가별 매출과 합산 이익률 추이



자료: 풀무원,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풀무원 미국 매출 및 순이익 추이



자료: FrGuid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솔브레인

메모리 감산 영향의 끝자락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메모리 감산 영향의 끝자락, 업황 저점 통과 예상

지난 연말부터 솔브레인의 실적 감소를 일으켰던 메모리 고객들의 감산 영향이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4의 과잉 재고와 Enterprise SSD의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외 전공정 공장의 가동률을 크게 낮춰왔으며, 솔브레인의 실적도 지난 3분기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진행된 감산 하에서 DRAM과 NAND의 업황이 올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급격히 줄여 놓은 가동률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사는 삼성전자의 NAND 양산 규모(wafer input capacity)가 '4Q22 655K/월 → 3Q23 465K/월 → 4Q24 580K/월'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솔브레인의 분기 실적 회복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

3분기 저점,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솔브레인의 실적은 고객사의 추가 감산 영향이 반영되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3Q23 매출액 2,102억원(-4%QoQ)과 영업이익 294억원(-11%QoQ)으로 소폭 하락한 뒤, 4Q23부터는 삼성전자의 평택3 공장과 테일러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며 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에는 삼성전자의 236L NAND와 3-4nm Foundry 양산이 확대되며, 솔브레인의 반도체 에천트 실적 성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솔브레인의 2024년 실적은 매출액 1조 306억원(+16%YoY)과 영업이익 1,970억원(+37%YoY)으로, 큰 폭의 개선을 이룰 전망이다.

목표주가 35만원, 반도체 소재 업종 top pick 유지

반도체 소재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며, 지난 2Q23 전사 영업이익률이 당사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다. 다만 이러한 수익성 하락의 대부분이 물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영향이기 때문에, 향후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시에 재차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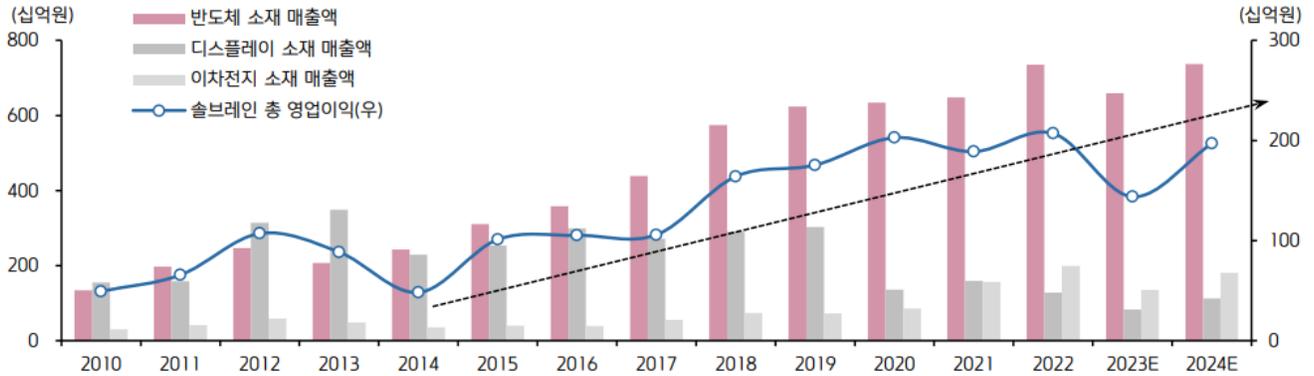
당사는 올 하반기 삼성전자의 '1bnm DRAM 양산'과 '236L V-NAND 기반의 AI형 SSD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중이며, 이를 전방으로 하는 솔브레인의 실적도 3Q23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단기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주가 역시 rock bottom(T12M P/B 2.0배) 수준까지 급락해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 목표주가 35만원과 반도체 소재 업종 Top Pick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023.9	1,090.9	886.6	1,030.6
영업이익	188.8	207.1	143.7	197.0
EBITDA	237.4	259.7	205.2	262.2
세전이익	203.2	215.4	172.3	214.7
순이익	152.2	167.7	133.8	166.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48.5	162.8	129.9	161.9
EPS(원)	19,093	20,928	16,703	20,819
증감률(%YoY)	18.0	9.6	-20.2	24.6
PER(배)	14.6	10.4	14.2	11.4
PBR(배)	3.41	2.18	2.08	1.79
EV/EBITDA(배)	8.6	5.8	6.5	4.7
영업이익률(%)	18.4	19.0	16.2	19.1
ROE(%)	26.3	23.0	15.6	16.8
순부채비율(%)	-20.1	-25.0	-35.0	-39.6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솔브레인 실적 추이 및 전망



주: 2010~2019년은 분할 전, 2020년부터는 분할 후 수치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NAVER

글로벌 빅테크와 한번 겨뤄볼까?

[\[출처\]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

국내 AI 산업에서도 주도권 잃지 않을 것

네이버에 대한 투자이견 Buy 및 목표주가 310,000원 유지. 당사는 네이버가 오랫동안 준비한 AI가 기보유하고 있던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시장을 리드할 전망

네이버는 8월 24일 'Dan23'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AI 사업 전반에 걸친 로드맵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할 예정. 네이버가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인 '하이퍼클로바X'를 통해 커머스, 콘텐츠, 광고 등 기존 사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B2B 영역에서도 성과가 기대. 이미 쏘카, 스마일게이트, 한컴 및 다수의 스타트업과 제휴를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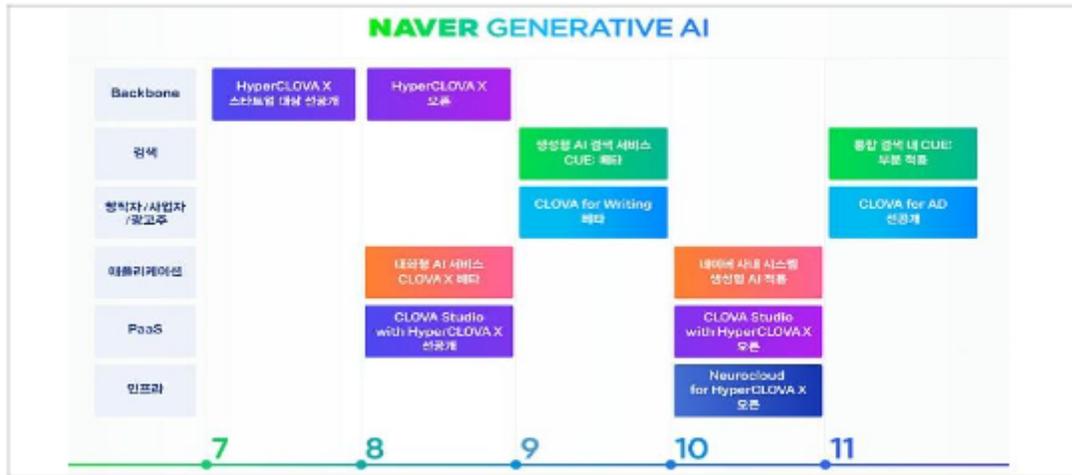
주주서한을 통해 네이버의 AI에 대한 자신감 피력

이번 컨퍼런스에 앞서 네이버 CEO는 주주서한을 통해 '제 4의 전환기'로 명명한 생성형 AI 시대에서도 네이버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 1)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하여 검색을 고도화하고 핵심 어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을 강화, 2) 비즈니스 및 창작 생산성을 극대화, 3) 맞춤형 AI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제공, 4) 생성형AI를 네이버 플랫폼에 적용 등 AI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판단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8,220	9,924	11,390	12,984
증감률	20.6	20.7	14.8	14.0
영업이익	1,305	1,500	1,769	2,053
증감률	-1.5	14.9	17.9	16.1
영업이익률	15.9	15.1	15.5	15.8
(지배지분)순이익	760.3	1,011	1,448	1,686
EPS	4,634	6,164	8,828	10,278
증감률	-95.4	33.0	43.2	16.4
PER	38.3	35.9	25.0	21.5
PBR	1.3	1.6	1.5	1.5
EV/EBITDA	17.1	20.2	17.2	14.7
ROE	3.3	4.5	6.4	7.0
부채비율	44.6	49.7	51.4	52.7
순차입금	-553.1	786.1	512.6	-63.3

단위: 십억원, %, 원, 배

네이버의 Generative AI의 라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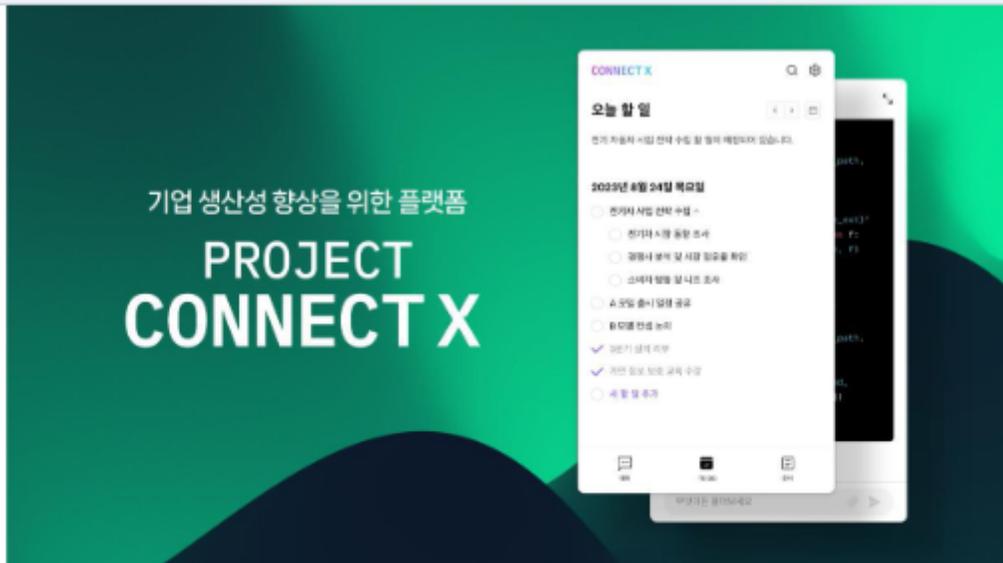
자료: 네이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네이버 대화형 AI 서비스 CLOVA X



자료: 네이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네이버 기업형 플랫폼 Connect X



자료: 네이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